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④ 19. ③ 20. ②

1.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③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근거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윤리학이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 ②, ④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 ⑤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아니라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2.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ㄴ. 순자는 각자가 예의에 따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禮)에 따를 것을 강조하며,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ㄹ. 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맹자는 백성은 향산(恒産) 없이 향심(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선비는 향산 없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기술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①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라고 보고,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 효과 또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의 입장에서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이익을 줄 수도 해악을 줄 수도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야스퍼스는 인간은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기술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기술은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보고,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수단으로만 여길 때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

이라고 보았다.

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술의 본질이 윤리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4. 유교 윤리와 도가 윤리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유교 사상가 공자, 을은 도가 사상가 노자이다. ④ 노자는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의 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가 아니라 존비친소를 구분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공자는 의로움[義]에 부합하는 이익[利]은 추구해도 된다고 보았다.
- ③ 노자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였다.
- ⑤ 노자가 아니라 공자만의 입장이다.

5.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⑤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예술 작품이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예술은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② 플라톤은 예술 활동은 미(美)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데아를 모방한 사물을 모방하는 활동일 뿐이라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예술 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라고 보면서도 올바른 품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예술 활동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6.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①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롤스의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롤스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롤스는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⑤ 롤스는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부정의할 경우, 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7. 음식 윤리에 대한 불교와 유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불교 사상, (나)는 유교 사상이다. ㄱ. 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유교에서는 배불리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仁)을 어기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 즉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고 보았다. ㄷ. 불교와 유교 모두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을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불교에서는 음식 섭취의 목적은 몸을 존속하며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8.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로 인해 폐단, 전쟁 상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홉스는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자연 상태의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② 홉스는 주권자는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 즉 리바이어던이라고 보고, 주권자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③ 로크는 사람들은 정치 사회에 들어갈 때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보았다.
- ⑤ 로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집행권을 정치 사회, 즉 국가에 양도한다고 보고, 개개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지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9.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적용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④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인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하버마스는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하버마스는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환경 윤리에 대한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테일러, 을은 레오폴드, 병은 싱어이다. ㄷ. 레오폴드는 인간에게 생태계 보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테일러는 인간에게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레오폴드와 달리 테일러와 싱어는 인간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는 모두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인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11. 정보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칼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칼럼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진리가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보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에 공개된 그른 의견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가 있다.
- ③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그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진리 발견의 기회가 증가한다.
- ④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그른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 ⑤ 칼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옳은 의견이 개진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12.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보수주의 관점, (나)는 중도주의 관점이다. ⑤ 보수주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중도주의는 상호 간 합의와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본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보수주의는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② 보수주의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③ 중도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④ 중도주의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가 있다 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13. 칸트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③ 칸트는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부모님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행동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행위여야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② 칸트는 이익의 최대화와 같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았다.
- ④ 칸트는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하라고 하지 않았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 의식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 ⑤ 칸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4. 교정적 정의에 대한 루소, 베카리아, 칸트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 병은 칸트이다. ③ 칸트는 베카리아가 어떤 개인도 자기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시민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칸트는 형벌권의 기초는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루소는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라고 보았다.
- ②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도적 형벌이라고 보았다.
- ④ 루소는 사형은 국가의 적으로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⑤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국외 추방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15.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ㄱ. 롤스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법 국가와 같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ㄴ.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원조 의무 이행에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싱어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가 공리 증진에 기여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싱어는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즉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없을 때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죽음관에 대한 장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② 장자는 삶과 죽음은 운명[命]이므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오온(五蘊)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苦]이라고 보았다.

17. 국제 평화에 대한 칸트와 모겐소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② 칸트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평화 연맹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모겐소는 국제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겐소에 따르면 국가 간의 동맹 없이도 세력 균형은 가능할 수 있다.

④ 모겐소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본질은 모두 권력 투쟁이라고 보았다.

⑤ 모겐소는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18. 유전적 강화에 대한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은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이다. ㉡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③, ⑤ ㉠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② ㉡에 해당한다.

19.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ㄴ. 노직은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소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최소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20. 엘리아데의 성과 속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 엘리아데는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들로, 즉 성현(聖顯)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성과 속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는 성(聖) 그 자체가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통해 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④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